

# TRANS- HUMANITIES

---

**Title :** ‘테러 시대’의 ‘테러의 심미화’와 ‘시의 폭력에 대한 시론(試論)  
**An Essay on the “Aestheticization of Terror” in a  
“Time of Terror” and the “Violence of Poetry”**

**Author(s) :** 이성혁 (Seong-Hyuk LEE)

**Source :** *Trans-Humanities*, Vol. 9 No. 2 (2016), pp. 253–85.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 ‘테러 시대’의 ‘테러의 심미화’와 ‘시의 폭력’에 대한 시론(試論)

---

이성혁 (한국외국어대학교)

## I. 들어가며: ‘테러 시대’라는 21세기의 상황

냉전이 끝난 이후 21세기를 ‘테러 시대’라고들 한다. 알다시피 이러한 시대 구분을 짓게 한 사건은 2001년의 소위 ‘9·11’ 테러였다.<sup>1</sup> ‘9·11 테러’는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예고한 서양과 동양의 문명충돌론이 현실화 되는 것 같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테러’가 갖는 중요성은 테러의 주체가 이슬람 전사 조직이라는 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테러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했다. 즉 어떤 한 극단주의자의 개인적인 행동(또는 두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도 테러가 이루어지곤 했던 것이다. 사실 냉전 시대를 이은 ‘테러 시대’는, 미국 내 극우주의자에 의한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 폭탄 테러가 일어난 1995년에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미국 내 극우파 민병대원인 티모시 맥베이(Timothy McVeigh)에 의해 저질러진 이 테러로 160명이 넘게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했다. 맥베이는 미국의 극우파 민병대 조직원이었고 테러에 대한 정치적 이유를 내걸기도 했지만, 그의 테러는 민병대 조직 차원에

---

1. 9·11 테러를 주제로 대화록을 실은 책으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라. 지오반나 보라도리. 『테러 시대의 철학—하버마스, 테러다와의 대화』. 손철성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 2013년 4월에 일어난 보스턴 테러 사건의 범인은 체첸 이민자 형제였는데, 이들은 이슬람교도였지만 그렇다고 테러 조직원은 아니었다. 그들은 개인적인 신념에 따라 테러 행위를 범한 것이었다.

근본주의적인 테러 조직의 맹원들은 자신의 테러가 전쟁 행위(‘성전’)의 일종이라고 생각한다. 폭력을 독점하고 이를 합법화 하는 조직이 국가라고 할 때, 이들 테러 조직의 폭력 행위는 범죄 행위로 (국가에 의해) 낙인 찍힌다. 하지만 이들 조직은 성전을 통해 기성의 국가 체제를 전복하고 신의 나라를 정립하고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자신의 테러 행위를 범죄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이 조직들은 비록 고도의 보안을 유지하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성 국가에 대항하고자 하는 거대한 조직이긴 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테러 작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테러리즘에 감염된 자국 내 국민의 개인적인 테러 행위는 예방 대응이 힘들다. 즉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떤 조직에도 가담하지 않고 개인적인 종교적·정치적 신념에 따라 테러를 행한 것이라면 말이다. 더구나 정치적·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닌, 망상에 따라 ‘묻지 마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 살인자의 행위가 ‘테러리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이 역시 불특정 다수의 살인을 행하는 것이므로 ‘테러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테러 행위’는 더욱 예방이 어렵다. 어떤 사람이 종말론적 망상이나 인종주의 망상에 빠져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승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국가는 도리어 자국민들을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게 된다.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자의 적이자 국내 극우주의의 적이기도 한 미국(정부)의 경우 이러한 감시 체제는 강박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시 체제의 추구는 어떤 이념을 바탕으로 한 어떤 단체의 테러보다는 순전히 개인에 의한 테러 행위를 부추기게 된다. 나아가 이러한 감시 체제는 기호자본주의의 정신 병리와 맞물려 예술과 현실

을 현실에서의 폭력을 통해 결합하고자 하는 '테러의 심미화'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 '주관적 폭력' 행위는 사회 체제의 객관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에 의한 병리적 반응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객관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 이 저항 역시 기성의 제도와 상징을 파괴하기 때문에 폭력적이다. 하지만 그 대항폭력은 제도와 상징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삶을 재구성하기 위한 폭력이자, 죽음을 향해 있는 폭력이 아니다.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폭력이 아니다. 이 글은 다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폭력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못하고, 상징적 폭력에 저항하고 그 상징적 권력을 해체하면서 실재(the real)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의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것이다.

이 글은 우선 '테러'에 대응하다가 '내과' 경향에 몰린 지배체제의 문제와 '테러리즘'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 정신병리를 양산하는 현 자본주의의 문제와 개인이 테러를 심미화—'시적 테러'—하여 저지르고자 하는 경향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할 수 있는 시의 능력 또는 상징적 폭력과 '테러의 심미화'에 맞서는 '시의 폭력'에 대해 시론(試論)적인 논의를 펼치면서, 시가 지니는 '폭력성'을 예술의 '동물 되기'와 관련하여 논해볼 생각이다. 이때, 이 글에서 말하는 '시'는 시 작품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시적인 것(the poetic), 포에지(poésie)를 의미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한다. 이 '시'는 시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장르 나아가 비예술의 실제적인 현실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추구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과잉되고 문턱을 넘어선 상태, 그리고 새로운 상황을 생성하고 구축하는 힘을 의미한다. '포에지'에 대한 정의는 논자마다 다르겠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 상황주의자 라울 바네겔(Raoul Vaneigem)의 포에지에 대한 정의를 인용해보고 싶다. 포에지가 제작을 뜻하는 포이에시스(poiesis)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는 '시적인 것'(포에지)이란 "창조적 자발성의 조직"이며 "질적인 것을 그것의 내적인 일관성에 따라 개발하는 것"(바네겔 274)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게 시란 "새로운 현실을 낳는 행위"이자 "관점

전복의 행위”이기 때문에, 관점을 전복하여 과업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낳는 것 역시 ‘시적인 것’이다.

## II. 시스템의 내파와 테러리즘의 한계

냉전 이후 새로운 전선은 서구와 동양 혹은 테러 조직 간의 문명 충돌에 놓여 있지 않다. 이제 잠재적 적은 내국인이다. 전선은 국가와 내국인 사이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와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가 명명한 현 제국 체제—냉전 이후의 세계 질서—에서, 제국 체제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잠재적인 적이다. 현 제국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 반감을 갖기 마련인데,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들 모두를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추측이 과장이 아니라 실제 현실이라는 것은, 전 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는 미 정보기관들이 “프리즘”(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 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찰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한 바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유럽연합 본부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을 ‘표적’으로 지정하여 도청과 사이버 공격으로 정보를 수집해왔음도 폭로했다. 미국은 자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국가들마저도 잠재적인 적으로 여기면서 그들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을 알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 국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미국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은 그 활동이 일종의 국운을 건 사업이라는 인상까지 주는데, 스노든의 체포에 과도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그렇다. 스노든은 이라크를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을 한다는 미국 국가의 말을 믿고 정보기관에 들어가 참전했지만, 결국 미국이 하는 일

은 자유를 파괴하고 전 세계인에게 몰래 족쇄를 채우는 작업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양심에 따라 미국의 불법 사찰을 폭로하고 망명을 요청했다. 즉 스노든은 자신이 믿고 있던 미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했던 것인데, 미국 정부는 그러한 그를 중형에 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래서 그의 망명 기도는 통상의 예에 따라 정치적 망명으로 인정되어야 했지만 미국 정부는 갖은 압력을 넣어 스노든의 망명을 방해했다.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에 스노든이 망명을 위해 탔을 것이라는 정보에 그 전용기의 유럽 영공 통과를 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 주권국가 수반의 전용기를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는 것은 세계에서 미국이 제국적인 주권을 휘두르고 있으며 한편으로 외교적 무리를 감내하면서까지 스노든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요컨대, 스노든에 관련된 이 사건은 허를 찔린 미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이 비밀스런 정보 수집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도 보여준다.<sup>2</sup>

미국 의회가 정보요원의 관리 및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국가를 제재하는 등의 명목으로 506억 달러의 예산을 조달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sup>3</sup> 막대한 예산은 또 다른 정보 요원들의 망명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도 쓰인다고 하니, 미국 정부는 세계인과 국가들을 감시하는 정보 요원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인 것이다. 이를 보면, 조지 오웰(George Orwell)이 형상화한 『1984』의 체제가 앞으로 현실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 우리 시대의 '빅 브라더'는 자율적으로 증폭되는 시스템 자체라는 것이 『1984』의 '빅 브라더'와는 다르다면 다르다. 이렇게 전 세계를 잠재적 적으로 삼는 '안보(security) 시스템'의

2. 스노든의 '폭로'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Citizenfour)나 다음의 자료를 참조하라. 루크 하딩,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 이은경 옮김. 서울: 프롬북스, 2014. 미국이 볼리비아 대통령 전용기를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 강제 착륙 시킨 사건에 대해서는 2013년 8월 13일자 『시사인』 308호에 실린 기사를 보라. 김영미, 「스노든이 지면 불, '활활 타는 남미」, 『시사인』, 13 Oct. 2014.

3. Cf. 최훈진, 「美, 56조원 들여 '제2의 스노든' 막는다」, 『서울신문』, 27 July 2013.

정교화와 자동화를 가져오고 있는 ‘테러 시대’에 대해서,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9·11’ 직후에 다음과 같이 예견한 바 있었다.

테러리즘의 가정은 시스템 자체가 자살이나 죽음의 거듭된 도전을 받아 스스로 몰락하는 것이다. [...] 죽음의 불가능한 교환이라는 이 현기증 나는 순환 속에서 테러분자들의 죽음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텅 비게 만드는 거대한 블랙홀 현상이다. 이 아주 작은 점(테러분자들의 자살 행위) 주위로 현실과 힘의 모든 시스템은 조밀해지고 경직되며, 그 자체로 집중되어 결국 초효율성에 의해 과멸하게 된다. (19)

억압적인 행위는 테러 행위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악순환을 거친다. 아무도 억압적인 행위가 어디서 멈추게 될지 알지 못하며, 그 후의 급변도 알지 못한다. 이미지와 정보의 차원에서 스펙터클한 것과 상징적인 것을 구별하거나 ‘범죄’와 억압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반전을 유발하는 것이 테러리즘의 진정한 승리이다. 테러리즘의 가시적인 승리는 사건이 은밀히 침투하여 가치를 뺏듯 먼저 나가는 형국에서 두드러진다—테러리즘의 가시적인 승리는 시스템 전체의 정치적·경제적·금융적 쇠퇴와 그로 인한 도덕적·심리적 쇠퇴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가 자부심을 지니고 다른 세계에 대해 영향력을 발휘한) 가치 체계의 쇠퇴에서도, 자유와 자유로운 순환의 모든 이데올로기의 쇠퇴에서도 나타난다. (33)

보드리야르는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 즉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를 침공한다는 대응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테러리즘이 노리는 목표는 미국의 특정 지역을 공격하여 사람들을 살상하는 보복에 있다기보다는 체제 시스템이 스스로 몰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테러리즘이 그것을 노렸는가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있지만, '9·11' 테러가 15년이 다 된 현재의 시각에서 볼 때, 보드리야르가 한 예상은 상당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래도 미국의 긍정적인 특성이라고 해 왔던 사회적 활력이 그 테러 이후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효율성을 넘어서 보안 시스템의 정밀화가 전 세계의 사회를 경직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테러의 위협은 이러한 과정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국가 시스템은 전보다 더욱 억압적이 되고 그럴수록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쇠퇴가 진행된다. 게다가 억압적인 국가 시스템과 경제적 시스템의 부식은 내국인의 무차별 살인 테러를 부추기는 반전을 낳는다.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미국이 내세운 가치 체계와 이데올로기가 쇠퇴하면서 미국의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탈냉전 이후 가동된 시스템은 공회전하면서 전력 누수로 점차 내파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냉전 이후 '테러 시대'에 이러한 예상이 실제로 진행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테러리즘은 자기 자신에게도 의외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순간, 미국은 1960-1970년대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함으로써 수렁에 빠졌던 것보다 더 긴 수렁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남전의 경우 철군이라는 탈출구가 있었지만, 이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미국으로서도 탈출구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 중심의 현 체제 시스템에 비판적인 입장이라면 테러리즘을 긍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누군가로부터 던져질 법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테러리즘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테러리즘에 의한 시스템의 내파는, 그 시스템에 비판적인 사람에게도 박수칠 일은 아니다. 그 내파 과정에서 사람들은 보복으로 인한 대항 테러에 죽어나가야 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감시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은 사람들에게 더욱 고통을 줄 뿐이다. 사실 미국의 침공으로 이라크에서 죽은 민간인은 쌍둥이 빌딩 테러로

인한 사망자보다 훨씬 많다. 테러는 보복의 광기를 낳고 보복의 광기는 어떤 사람들만 죽이기 마련이다. 테러리즘은 보복의 회오리바람에 의해 정세의 경직화를 낳고 정치적인 것을 사라지게 만들며 저항 세력의 활동 영역을 협소하게 만든다. 게다가 ‘근본주의’나 망상에 의한 살육으로 인해 서서히 내파된 체제 이후에 도래할 체제는 이전보다 더욱 끔찍한 것일지 모른다.

많은 비판적인 급진주의자들이 테러리즘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의 세계질서와 그 질서의 동인인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은 테러리즘의 유혹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테러리즘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지오반나 보라도리(Giovanna Borradori)와의 대담에서, ‘빈 라덴’ 효과를 노리는 테러리즘에 대해 행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여타 정치적 목적의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해당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 ‘빈 라덴 효과’를 노리는 (실천적, 무장적, 이데올로기적, 수사적, 담론적) ‘전략’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은, 잔혹성이나 생명 경시, 법에 대한 경시, 여성 등등에 대한 경시, 종교적 광신주의를 위해 현대 기술 자본주의 가운데 최악의 것을 이용하는 일, 단지 이런 것들만은 아닙니다. 용인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위와 담론들이 **장래로 열려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어떤 장래도 없다는 점**입니다. [...]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제안되고 있는 것은, 모든 자본주의적 힘과 현대의 기술과학적 힘이, 그 자체로는 교조적인 유일자의 이슬람적 계시를 해석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보라도리 207-08, 원문 강조)

데리다에 따르면, 경직된 정치적·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알 카에다’의 테러리즘은 어떤 장래도 열 수 없다. 이러한 테러리즘은 오직 테러를 통해 상대방에게 ‘신정’에의 굴복을 요구한다. 이들 테러리스트

에게는 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만이 문제여서, 테러리즘은 정치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장래의 열림을 가로막고자 한다. 하지만 『테러 시대의 철학』의 저자 보라도리가 지적하고 있듯이, 데리다가 모든 테러나 폭력을 자유주의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데리다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폭력비판론」을 빌려 “모든 국가의 정초는 우리가 이처럼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은 새로운 법을 창설하며, 항상 폭력 속에서 창설한다”(데리다 83, 원문 강조)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처럼, 새로운 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국가를 정초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독립주의자들의 폭력은 미국 입장에서는 독립 투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실패한 혁명도 있을 수 있고 실패한 저항도 있을 수 있다. 그때 그 혁명이나 저항을 위한 폭력은 난동이나 폭동으로 낙인찍힌다. 한국에서 87년 ‘6·10 항쟁’을 거쳐 새로운 헌법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1980년 5월 광주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불렀는지 생각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보라도리는 데리다가 “모든 혁명적 순간들이 근본적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판독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지적한다(297). 그렇게 “테러리즘도 혁명이나 전쟁처럼 법체계에 도전한다는 사실 때문”에 “테러 행위를 기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위의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테러리즘에 결여된 것은 미래를 향한 기획과 현재의 완전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어서 데리다의 입장에서 볼 때 “테러리즘에는 곧 정의가 없는 셈”(298, 299)이라는 것이다. 테러리즘 역시 혁명 세력처럼 자신의 테러가 법을 정초하는 폭력이 되고 싶어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장래를 끌어당기는 비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테러는 그야말로 사람들을 살상하는 데에 그치고 말 것이다.

### III. ‘기호자본주의’의 정신 병리와 ‘테러의 심미화’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도 근본주의자들의 폭력은 “미래를 향한 기획”이 없는 단순한 증오에 따른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그의 말을 직접 빌리면,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건, 9·11 테러건 마찬가지다. 두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순수하고 단순한 증오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장애물에 불과한 오클라호마 연방 청사와 세계무역센터를 파괴하는 것이지, 진정한 기독교 사회나 무슬림 사회를 이룩한다는 고귀한 목적이 아니었던 것”(지젝, 『폭력이란』 137)이다. 즉, 보드리야르에 따라 21세기 테러는 분명히 제국 체제 시스템을 스스로 내파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측면이 있다고 할 때, 그 테러리즘은 “미래를 향한 기획”이 없기 때문에 테러로 인한 체제 시스템의 내파는 혁명적 상황보다는 야만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그런데 테러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파국’ 조짐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개인적인 테러 행위—무차별적인 살육—를 더욱 부추기는 듯이 보인다.

지젝은 테러를 자행하는 근본주의자들에게는 “티베트 불교신자부터 미국의 암만교도까지, 진짜 근본주의자들에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성,” 즉 “원한과 부러움의 감정이 없으며, 믿지 않는 자의 생활방식에 완전히 무관심하다는 특성”(『폭력이란』 129)이 없다고 말한다. 가령 티베트 불교신자가 쾌락주의자인 서구인을 만났을 때 그를 비난하는 일은 없지만, “사이비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죄 많은 삶에 몹시 신경을 쓰고, 호기심을 느끼며, 매혹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사이비 근본주의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증오하는 것은 그 타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죄 많은 타자와 싸우면서 자기 자신이 느끼는 유혹과도 싸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130)는 것이다. 지젝에 따르면, 이들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은 타자의 삶의 방식을 부러워하며 그들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는데, 허나 타자의 삶의 방식을 살 수 없다

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열등감이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러움은 증오로 변전된다. 하여 테러리즘은 자기 자신의 삶보다도 타자의 삶의 방식에 대해 더 증오를 가지고 몰두하고는,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포기하는 동시에 타자가 누리는 향유를 박탈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니, 지젝에게 악덕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기주의는 타인의 삶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악덕은 바로 그가 자기 자신보다 남들에게 더 몰두한다는 점이다.”(137).

지젝이 묘사한 ‘사이비 근본주의자 테러리스트’의 심성은, 조승희나 핀란드의 페카 에릭 오비넨(Pekka-Eric Auvinen),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두 고등학생과 같이 정치적인 신념이 뒷받침되는 것이 아니라 망상과 순수한 증오에 따라 개인적인 수준의 테러 행위를 한 이에게 더욱 해당될 법하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본격화 되고 디지털 문화가 급격하게 보급되는 1990년대 이후 어린 학생들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율주의 맑스주의자인 프랑코 베라르디(Franco Berardi)<sup>4</sup>의 분석이 도움을 준다. 비포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두 범인을 순교자로 불렀던 조승희—그는 자신이 다니던 버지니아 공대에서 32명을 사살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의 예를 분석하면서, “조승희의 폭력행위가 감정회로의 포화 상태, 과부하에 의해 야기된 누전과 결부되어 있다”(베라르디, 『미래』 101)면서 그 폭력행위를 다음과 같이 ‘기호자본주의 시대’에 만연된 병리 현상과 연결시킨다.

기호자본주의의 초신자유주의적 신어에 따르면 “당신의 자유를 증대시키세요”라는 표현은 사실 “당신의 생산성을 증대시키세요”라는 의미이다. 정보-광고-생산성의 자극들에 노출되는 것이 공황에 가까운 신경쇠

4. 비포라고도 불린다. 아래에서는 비포로 호칭할 것이다.

약 효과를 만들어내고 병적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신경 에너지의 자극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곧장 폭력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강도 높은 신경 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 전부 살인자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회로는 그보다 더 복잡하다. 신경 에너지의 지속적인 동원은 우울증적 반응을 낳을 수 있다. 행동하고 경쟁하려는 시도가 좌절되면 주체는 자신의 리비도 에너지를 사회적 무대에서 회수해온다. 우리의 좌절된 나르시시즘은 움츠러들고 에너지는 스스로를 차단해버린다. [...] 우울증의 정신적 원인이 아니라 억제적 폐쇄성에만 효력이 있는 약물 치료와 달리, 우울증 치료에는 깊고도 깊이 공들인 언어적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 폐쇄성을 풀어주는 조치는 우울증을 배경으로 한 특유의 폭력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 [...] 우울증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은 채 행동 억제만 제거하는 약물이 무모한 행동, 그야말로 자기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힘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베라르디, 『미래』 102-03)

비포의 분석은, 무차별 살상을 정보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하면서 도래한 ‘기호자본주의’와 경쟁이 극심해지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사회적 상황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데에 그 특성이 있다. 인용문에 따르면, 과도한 정보의 홍수에 노출된 채 그 정보의 재료인 기호를 조합하는 노동을 하고 있는 인지 노동자들과 그러한 인지 노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자유를 증대시키려는 ‘명령’을 받아 자신의 생산성을 스스로 증대시켜야 하는 압박을 받는다. “정보-자극-생산성의 자극들에 노출되는” 이들은 신경쇠약과 병적 흥분에 사로잡히곤 하고, 경쟁에 밀려 좌절을 겪을 때에는 좌절된 나르시시즘에 따라 리비도를 철회하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이러한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치료—“깊고도 깊이 공들인 언어적 작업”—하지 않고 기분을 끌어올리는 약물에 의지하여 일시적으로 풀어낼 때 “자기 파괴적이거나 폭력적인 힘의 폭발을 일

으킬 수 있”(102-03)는데, 조승희의 경우에는 무차별적인 살육으로 그 과부하의 폭발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컬럼바인 참사의 범인인 해리스는 항우울제를 지급받고 있었고, 죽음을 맞을 당시 약을 적정량 복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약물이 분노의 증가와 죄책감의 감소를 일으키면서 해리스의 범행에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비포는 조승희 역시 항정신적 약물을 복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위에서 말했듯이, '테러 시대'는 근본주의자들의 정치적 '저항'으로서 테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면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 평범해 보이는 개인에 의해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공포의 상황이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9·11'은 이러한 시대의 도래를 가속화 시켰다. 그런데 테러 공포와 그에 따르는 감시 시스템은 기호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의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킨다. 우울증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약물로만 잠시 벗어나게 하는 현 사회 시스템은 폭력의 폭발을 유발한다. 하여,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테러의 위험은 더욱 고조된다.

그래서 사회가 이러한 폭력과 공포의 악순환에 놓이게 된 것은 사회 시스템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사회 시스템의 '객관적 폭력'—'구조적 폭력'과 '상징적 폭력'—이 '주관적 폭력'을 유발한다. 지젝은 자유주의자들이 눈에 보이는 '주관적인 폭력'을 비판하면서,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자본주의 세계화의 결과로 죽어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릴 때면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부인된다”고 말한다. “그 모든 일은 그저 '객관적인' 과정의 결과물로서 일어났을 뿐이며, 누구도 계획하고 실행한 적이 없었”(지젝, 『폭력이란』 41)기 때문이다.<sup>5</sup> 그러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객관적인 폭력은 삶과 정신을 파괴한다. 테러리즘의 확산

5. 지젝은 폭력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주관적 폭력', 언어를 통해 구현되는 '상징적 폭력'과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에 따르는 '구조적 폭력'이 그것이다. '객관적 폭력'이란 '상징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묶은 개념이다(『폭력이란』 23-24).

은, 정보의 자극에 노출되어야 하고 경쟁에 내몰리면서 우울과 증오심(분노)에 사로잡히는 병리를 양산하는 현 자본주의 시스템의 '객관적인 폭력'에 대한 파괴적—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한—인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비포의 『미래 이후』(After the Future)에는 9·11 테러에 대한 또 다른 독특한 시각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9·11'의 발생과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종말을 연결시켜 논하는 부분이 그것이다. 예술과 일상의 분리를 폐기하려는 아방가르드의 역사는 "9·11 사건의 몸짓에서 그 막을 내리기에 이르렀다"(베라르디, 『미래』 65)는 것이다. 생똥맞은 소리 같지만, 비포는 "예술과 삶(혹은 죽음.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의 융합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자살'이라는 형태의 행위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미래가 없는 세기의 완벽한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했다"(65)면서 그 근거를 대고 있다. 즉, '9·11' 테러로 현실에서 예술과 삶(죽음)의 융합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술 행위를 통해 삶과 예술을 통합하려고 했던 예술적 아방가르드의 기도는 무색해지고 그래서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인류는 과대 평가됐다"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기관총을 들고 나타나 살육을 벌인 핀란드의 에릭 오비넨 사건은 예술—시적 문구—을 현실화하는 아방가르드적인 시도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는 유비 같지만, 사실 앙드레 브르통(André Breton)은 「초현실주의 제2선언」(Second manifeste du surréalisme)에서 "가장 단순한 초현실주의적 행위는 양손에 권총을 들고 거리로 내려가 군중 속으로, 힘이 미치는 한, 무턱대고 총알을 쏘아 대는 데 있다"(브르통 132)고 말하지 않았던가.

물론 초현실주의자들 중 정말로 브르통이 말한 행동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또 실제로 할 생각을 가진 자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은 오비넨 처럼 세계의 94%가 어리석은 자들이고 창조적이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6% 중 3%만이 선한 자들이며 이 선한 자들이 우매한 대중을 일깨우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8명의 무고한 동료 학생들을 죽이는 것—을 해야 한다

는 식의 파시즘적 망상에 빠지지도 않았다. 브르통의 말은 현존하는 세계에 대한 반항의 절대성과 폭력성—예술적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이다. 비포 역시 브르통의 이 말을 알고 있을 것이며 그 말의 함의 또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어떤 망상가가 브르통의 말을 실현시켰을 때, 예술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어버렸다는 것이 비포의 판단이다. 그래서 비포는 저 테러가 현실에서 시를 완성하는 '시적 테러'의 시대에 아방가르드의 예술적 행동주의는 더 이상 의미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판정한다. 그는 아방가르드 행동주의가, 상처받은 남성적 나르시시즘의 우울증과 관련 있는 레닌의 주의주의와 관련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레닌이 없었다면 20세기가 훨씬 더 나은 세기가 됐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과국과 전쟁의 지점으로 몰아간 행동주의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베라르디, 『미래』 63, 62) 한다고 주장한다.

## Ⅶ. 상징적 폭력에 대항하는 시의 폭력

비포는 “반복됐지만 결국 실패한 시도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경제적·군사적 동원으로부터 사회적인 것의 자율을 향해가는 길은 활동 중지, 침묵, 수동적 사보타주로의 철수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베라르디, 『미래』 63)이라고 추측한다. 그가 보기에는, 21세기의 예술 역시 디스토피아로 철수하고 있다. 20세기의 예술은 “마야코프스키의 급진적 유토피아와 바우하우스의 기능적 유토피아”를 지지했는데 반해, “21세기 초인 오늘 날, 디스토피아는 중심 무대를 차지하고 예술적 상상력의 장 전체를 점령”하였으며 “현대의 시, 영화, 비디오 아트, 소설 속 표현에는 정신병리학적 전염병의 흔적이 만연해 있다”(70-71)는 것이다. 이제 21세기 예술은 ‘고발’과 ‘참여’와 같은 말을 감당할 힘이 없으며, 그래서 그 말들은 이 시대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즉 이 세기의 예술적 감수성은 시대의 전환을 기록

할 뿐이지 그 시대와 단절하고 맞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75-76). 그렇다고 비포가 이러한 예술의 무기력한 상황을 긍정하거나 비관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탈리아 미래주의에서 비롯되는 남성적 나르시시즘의 행동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운동과 예술의 다른 전망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는 1909년에 이탈리아에서 발표되었던 ‘미래주의 선언’은 이제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선언문 발표 후 딱 100년이 되는 2009년에 ‘포스트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하는데,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다.

1. 우리는 사랑에 대한 위협, 결코 흩어지지 않는 달콤한 에너지의 일상적 창조를 노래하고자 한다.
2. 아이러니, 부드러움, 반란이 우리 시의 본질적 요소가 될 것이다. [...]
4. 우리는 새로운 아름다움, 자율의 아름다움이 세계의 찬란함을 풍요롭게 해줬다고 선언한다. 각자가 자신만의 리듬을 따르기. 아무도 단일한 보조에 맞춰 행진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된다. [...] 속도는 느려졌다. 자동차들은 도시의 혼잡함 속에서 멍청하게 꾸벅꾸벅 조는 거북이 만큼이나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느낌만이 빠르다.
5. 우리는 서로를, 이 세계를 더 잘 알기 위해 서로를 어루만지는 남성들과 여성들에 대해 노래하고자 한다.
6. 시인은 집단지성의 힘을 증대시키고 임금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열의를 다해 전력으로 자신을 바쳐야 한다.
7. 아름다움은 오직 자율 속에서만 존재한다. 가능한 것의 지성을 표현하지 않은 걸작은 없다. 시는 다양한 상상의 공유를 가능케 하고 특이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무의 심연 위에 가로 놓인 다리이다. [...]
9. 우리는 전쟁 담론을 퍼뜨리는 멍청이들, 즉 경쟁의 광신자, 학살을 선동하는 턱수염 기른 신들의 광신자, 우리 모두의 안에서 피어나 상대방을 무장 해제시키는 여성성을 두려워하는 광신자들을 비롯하고자 한다.
10. 우리는 예술이 삶을 바꾸는 힘으로 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는

장사들로부터 미디어의 힘을 되찾아 시인들과 현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시와 대중매체의 분리를 폐지하고자 한다.

11. 우리는 집단적 반란으로 착취에 맞서 마침내 임금노동이라는 노예상태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위대한 군중에 대해 노래한다. [...] 우리는 현재의 무한함을 노래하고 미래라는 환영을 버린다. (252-53)

이 선언문을 보면, 비포는 여전히 아방가르드에서처럼 “예술이 삶을 바꾸는 힘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속도와 미래를 중시하는 남성적인 행동주의 예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느낌을 중시하면서 “현재의 무한함을 노래하”는 예술을 통해서다. 이 선언문에서 시의 ‘본질적인 요소’는 다시 강조된다. 그 ‘본질적인 요소’란 “아이러니, 부드러움, 반란”이다. 비포는 저 선언을 발표한 이후에 출간한 『봉기—시와 금융에 관하여』(*The Uprising: On Poetry and Finance*)에서, 금융 위기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 ‘기호자본주의’ 체제와 ‘금융독재’에 대항하는 데에 시가 갖는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인용하여 그의 주장을 소개하면 이렇다.

비포에 따르면, “정보영역과 경제의 통합”이 뚜렷한 특징인 금융독재 아래에서는 “가치화과정이 기호적인 것으로 바뀌”(베라르디, 『봉기』 9)고 노동 역시 기호를 추상적으로 조립하는 과정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금융독재는 언어를 자동화 하고 식민화 하는 과정”(7)이며, 의미는 정보로 환원되어 교환된다. 하지만 “언어의 과잉(초과)”(153)인 시는 “의미화과정의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고, 시간과 감수성의 관계의 재활성화로 가는 길을 여는 기호의 연쇄”(155)이기에 정보화될 수 없고 교환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목소리의 특이한 진동”인 시는 “공명을 창출할 수 있고, 공명은 공통의 공간을 생산”(154)하기에 “사회의 성애적인 신체”를 재활성화 하고 “특이성으로 들어가는 인식의 문들을 연다”(153)는 것이다. 그래서 비포는, 금융독재에 저항하는 집단적 자율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의 능

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지젝의 말을 따르면,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폭탄을 폭발시키는 테러만이 폭력이 아니라 '객관적인 폭력'도 존재한다. 특히 전세계적인 금융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독재'의 '객관적인 폭력'은 사람들의 삶을 절망에 빠뜨리고 자살로 몰아넣는다. 또한 언어를 식민화하고 자동화하는 기호자본주의 시스템은 감수성을 파괴하고 영혼을 황폐화 시킨다. 그러니 현 자본주의 시스템 역시 테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말했듯이, 이러한 '객관적인 테러' 아래서 주관적인 테러는 범람한다. 현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테러를 봉쇄하기 위해 더욱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비가시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이 폭력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은 자신을 과시하면서 죽고 죽이는 '테러의 심미화'로써 폭력을 폭발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테러 시대'에서, 비포는 의미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신체를 구축하는 통로를 여는 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행동주의와 예술적 아방가르드에 대한 비포의 지나친 경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부드러움이 시의 힘이 될 수 있다는 비포의 강조는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주장은 자칫 시가 가진 저항의 힘 또는 폭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지젝은 2012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시의 폭력성—'시의 고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시아말로 언어 고문의 위대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운율 등을 집어 넣기 위해 시가 보통의 언어에 하는 짓을 생각해 보세요. 단어의 순서를 바꾸고 자르고 짜내야 하지요. 이것은 끔찍하도록 잔인한 분해 작업입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고문하는 것으로 시작해 결국 사람을 고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반대라고 주장합니다. 언어를 고문하느냐, 사람을 고문하느냐는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언어는 근본적으로 깊은 진실의 매개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어

는 자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지요. 모든 일반적인 편견과 한계가 언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정신분석의 개념 중 하나인 상징적 거세이지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들이 언어라는 집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우리를 게걸스레 먹어치우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언어 속에서 생각하거나 말하되, 언어에 반하는 관점으로 언어를 고문함으로써 반격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이나 시는 이것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지젝, 『임박한』 117-20)

인용문에 따르면, 상징적 거세를 일으키는 언어 자체는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우리를 끼워 맞추고는 “게걸스레 먹어치우는” 폭력을 행사하는 “무서운 괴물”이다(119). (상징적 폭력) 언어는 자연적이지 않으며 반대로 “자연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이다. 언어의 태생 자체에서 이미 이데올로기가 생산된다. 또한 언어는 마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도구로서, “진실의 매개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그 자연스러움 자체가 실재를 가리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젝은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주조하는 언어의 괴물성에 대해, 언어를 고문하는 ‘시의 폭력’이 ‘반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젝에 따르면, 절대적인 비폭력을 주장하는 것은 폭력성을 눈에 보이는 ‘주관적인 폭력’에서만 발견하고 이 세계가 구조적-상징적인 폭력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맹목임을 드러낸다. 언어를 통한 상징적인 폭력에 대해 ‘언어의 고문’이라는 폭력으로 반격할 수 있어야 하며, 체제의 시스템을 통한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 시스템의 개조라는 폭력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인’ 대항폭력은, 삶을 파괴하고 불행에 빠뜨리는 폭력 장치들을 변화시키거나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6</sup>

6. 하지만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주관적인 폭력의 경우에는, 그 행사를

그리하여, 이 글은 ‘폭력’이라는 문제, 그리고 ‘시의 폭력’이라는 문제에 도달한다. 시의 폭력은 상징 체제를 균열시키는 폭력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 그것은 자동화된 언어의 의미를 뚫는 이미지의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정동의 과잉을 불러일키는 이 시적인 것—이미지의 폭력성—은 프로이트가 논한 ‘두려운 낯설음’(unheimlich)을 가져올 수 있다. 프로이트는 unheimlich의 접두사 un을 “억압의 표식”(프로이트 440)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 억압된 것—거세와 관련된—의 귀환으로 인해 일어나는 ‘두려운 낯설음’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에른스트 호프만(Ernst Theodor Wilhelm Hoffmann)의 작품 「모래인간」(Der Sandmann)에 등장하는 살아 있는 것 같은 인형이라든가 분신의 모티프, 죽은 자의 귀환, 눈을 뽑는 것, 이유를 알 수 없는 동일한 것의 반복적인 행위(반복강박), 생각의 전능성, 나쁜 시선 등에서 느끼게 된다. 독자는 「모래인간」을 읽으면서 이러한 두려운 낯설음의 정동을 경험하는 동시에 억압된 무의식으로서의 실재의 진실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시적인 것의 폭력성은, 상상으로 구축된 일

---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체제의 구조적인 폭력에 맞선다고 테러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체제의 구조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기성 체제의 폭력이 지탱하고 있는 구조를 변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변혁은 주관적인 폭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상징적 폭력 역시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행하는 상징적 폭력에 저항한다고 그 선생님에게 주먹을 휘두를 수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뢰한의 폭행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폭력에는 시와 철학을 통한 상징 체제의 변조 또는 파괴를 통해 저항할 수 있다. 그러니, 언어의 고문과 사람의 고문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 거리에 나가 총을 쏜다는 가장 단순한 초현실주의적인 행동에 따른다고 정말로 거리에서 사람을 살해하는 행동을 하면 어리석은 것이다. 학교에서 총을 쏘대는 어린 청소년들이 그렇듯이, 실제와 상징 차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음은 타인들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거나 타인들의 삶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주관적인 폭력이 자신의 신체에 직접 행해지고 있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폭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폭력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그 폭력으로부터 신체를 방어하는 폭력 말이다. 이러한 폭력마저도 거부하는 ‘비폭력주의’—때리면 그냥 맞는—도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권할만한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의 ‘삶’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종의 어리석음이라고 판단된다.

상생활 속의 '환상의 베일'을 찢으면서 충격적인 실재를 환상을 통해서든 아니든 드러내는 데에서 나타난다. 이 폭력을 통해 시적인 것은 환상의 베일로 가려진 실재의 진실을 드러내고, 나아가 그 진실로부터 욕망을 다시 구축하는 데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이 시의 폭력은 절대적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을 '위한' 폭력이 아니다. 그것은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이 벤야민의 '신적 폭력' 개념에 대한 주석에서 말한 "법과 폭력의 연결망을 폭로하고 절단하며,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치하거나 집행하는 폭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작동하고 현현하는 폭력"(아감벤 121), 즉 '목적 없는 수단'인 '순수한 폭력'과 관련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목적 없는 수단으로서의 폭력에 대해 벤야민은 "폭력이 갖는 간접적이지 않은 기능을 일상적 삶의 경험이 이미 보여준다"면서 "예를 들어 분노는 사람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폭력의 폭발, 목전의 목적에 대해 수단으로서 관련되지 않는 그러한 폭발로 이끈다. 그 폭력은 수단이 아니라 발현(현현)인 것"(벤야민 106)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성의 언어가 짜놓은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찢는 시의 폭력성은 분노처럼 어떤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발현에 따르는 폭발에 의해 나타난다.<sup>7</sup>

7. 이러한 시의 폭력을 극단화하여 사고한 것이 시인이자 극작가인 앙토넵 아르토(Antonin Artaud)이다. 연극의 시적인 성격에 대해 강조한 그는, "진정한 연극은 확실성이나 질서가 지배하는 곳을 벗어나서 시(詩)처럼 탄생한다"면서 그의 '잔혹극'에서는 "말을 인간의 성격을 전달하는 외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간주"하고 "삶과 접촉하기 위해 언어를 파괴"(아르토 77, 108, 22)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토가 생각한 시는 아감벤이 말한 '목적 없는 수단'으로서의 말로 이루어지며, 삶의 실재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기성의 언어를 파괴해야 한다. 이 파괴의 힘이야말로 시의 '순수한 폭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르토가 "내가 의미하는 잔혹성은 사악한 잔혹성이나 정도(正導)를 이탈한 욕망을 옹호하게 하는 잔혹성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내가 '삶' 혹은 '필연성'을 말하고자 원했을 때, 나는 '잔혹성'이라고 말했던 것"(168)이라는 것, "긴장의 수준이 극단으로까지 치닫는" "정신의 흥분 상태"이자 "정신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정신을 뒤흔드는 것"이 연극의 감동적인 잔혹성이며, 이 잔혹극에서 연극은 해방된 "삶과 동일한 것"(171)이 된다.

## V. ‘동물-되기’의 과정에서 발현되는 시적 이미지의 폭력성

분노의 발현에서도 볼 수 있는 시의 폭력—순수한 폭력—은 ‘동물-되기’의 과정에서 현현하는 이미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목적 없는 수단으로서의 순수한 폭력은 동물의 행태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젊은 자율주의자 맛떼오 파스퀴넬리(Matteo Pasquinelli)는 『동물혼』(*Animal Spirits: A Bestiary of the Commons*)에서 펼치고 있는 ‘동물혼’ 개념을 바로 ‘동물되기’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 ‘동물혼’은 ‘동물되기’와 함께 살펴볼 때 그 실천적 함의가 잘 드러난다. 파스퀴넬리가 제시한 ‘동물혼’이란 기이한 개념은, 이 책에 따르면 존 메이너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가 처음 제시한 것이다. 케인즈는 “주식시장의 배후에서 투쟁하고 경기순환을 압박하는 비합리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힘들을 ‘animal spirits’라고 정의했다”(파스퀴넬리 31)고 한다. 파스퀴넬리는 이들 야수적 힘들이 다중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그 힘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의 자기가치화’(네그리)인 사보타지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동물혼’을 케인즈와는 다른 함의와 의의를 가진 긍정적인 개념으로 전환시켜서 다중의 대안적인 주체성을 모색하는 데에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는 ‘동물혼’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 선하다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도 주장<sup>8</sup>하면서, “동물력이 자본주의의, 아니 더 나아가 새로운 파시즘의 어두운 재료가 되기 전에 생산적인 동물력을 회

8. 이는, 역시 자율주의자인 파올로 비르노(Paolo Virno)의 생각에 따른 것이다. 비르노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방법에 적대하고 ‘국가에 대항하는 래디컬리즘’은 우리의 종種이 생래적으로 온화하다는 가설에 등을 돌리고 인간 동물의 부정으로서 잠재적인(위험한) 즉, ‘문제적인’ 성질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에 의해, 진정한 기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결단’의 독점의 비판, 일반적으로 말해서 강박관념처럼 규칙을 밀어붙이는 제도적 조직에의 비판은, 인간은 ‘본래 악하다’라는 인식 아래에서 행할 필요가 있다”(184)고 말한 바 있다.

복”(파스퀴넬리 53-54)하는 것을 이 책의 저술 목적으로 삼고 있다.

파스퀴넬리는 저항 행위가 ‘저항의 상상계’가 아니라 ‘상상계의 저항들’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동물혼』의 마지막 장인 4장, ‘머리 둘 달린 이미지’는 바로 ‘상상계의 저항들’을 모색하는 부분이다. 그는 “집합적 상상계가 디지털 다중의 야수적 본성을 쉽게 표현”하며 “스펙터클은 동물본능들의 직접적인 표현”(297)이라면서, 벤야민을 따라 “오늘날 정치적 주체성의 회복은 집합적 상상계의 공간에서 [...] 집단적 신체의 신경감응(innervation)에서 생겨날 수 있을 뿐”(299)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이미지는 환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환영유령일 뿐”(335)이라고 보는 견해에 맞서, “이미지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영역으로 인식하려는 여하한 시도”(336)를 꺾고 “이미지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이미지의 새로운 지위를 규정”(335)하고자 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참조되는 것은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감각의 논리』(*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에서 논해지는 ‘동물-되기’ 개념이다. 그 책에서 ‘동물-되기’ 개념은 “이미지의 사유장을 공격하면서 이미지 자체를 ‘동물혼’으로 만든다”(328)고 한다.

들뢰즈는 영국의 현대 화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회화에서 “인간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고 명확히 할 수 없는 영역”(들뢰즈 39, 원문 강조)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간은 동물이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 동물은 또한 인간의 혼<sup>9</sup>이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 명확히 식별 불가능한 이미지가 “이미지 자체를” 인간의 동물혼으로 만드는 것이다. 베이컨의 이미지는 인간의 동물-되기를 이루게 하는 야수적 힘—동물혼—을 가시화 한다. 베이컨은 힘이러는 가시화되지 않는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파스퀴넬리는 들뢰즈를 인용하면서 야수적 힘을 드러내는 베이컨의 이미지가 지닌 폭력성에 대해 논한다. 베이컨 회화의 폭력

9. 『감각의 논리』 한국어 번역판에는 『동물혼』에서의 ‘혼’이 ‘기(氣)’라고 번역되어 있다.

성은 “일부 이미지들의 폭력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경계에 가하는 어떤 이미지의 잔혹한 영향”(파스퀴넬리 300)이라고 그는 말한다.<sup>10</sup> 그래서 베이컨의 이미지가 지니는 폭력성은 벤야민이 말한 ‘신경감응’을 일으킨다. 베이컨은 저항이라는 내용을 상상하여 회화로 구성(‘저항의 상상계’)하지 않는다. 그의 회화에서는 상상계에 속하는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저항(‘상상계의 저항’)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상계가 집합적 공간을 이루고 그리하여 신경감응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정치적 주체성의 회복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

집단적인 신경감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술작품의 폭력적인 이미지—폭력적인 내용의 이미지가 아니라 잔혹한 영향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중에 내장되어 있는 생산적이고 야수적인 힘—동물혼—을 잠 깨우게 된다. 그러한 폭력적인 이미지<sup>11</sup>를 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미지는 베이컨의 회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 작품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동물-되기 과정에서 현상된다. ‘되기’ 자체가 사실 존재의 변형이기 때문에 폭력적인 것이어서, 동물-되기뿐만 아니라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가 말하는 ‘여성-되기,’ ‘아이-되기,’ ‘식물-되기,’ ‘광물-되기,’ ‘분자-되기’ 등 모든 되기 과정은 동물혼을 잠 깨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물-되기’ 과정이야말로 다른 존재로의 생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현상한다. 베이컨의 초상화만 해도, 동물혼을 드러내기 위해 베이컨은 “얼굴을 해체하여 그 밑에 숨겨진 머리가 솟아나도록 하거나 다시 찾는”(들뢰즈 38) 과격한 이미지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미지가 과격해지는 것은 인간의 동물-되기 과정은 인간 신체의 해체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 이는 바로 아르토가 말한 연극에서의 ‘잔혹성’과 유사하다.

11. ‘폭력’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미지’라고 해야 잘 수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동물-되기’는 동물로의 생성 과정 그 자체이다.<sup>12</sup> 그리고 동물-되기는 파스쿠넬리의 동물혼을 활성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파스쿠넬리에게 동물혼의 활성화는 ‘동물력’이 현 자본주의의 권력에 저항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동물은 인간과의 공생의 차원, 인간의 돌봄의 차원에서보다는 지층화된 ‘인간’으로부터 탈주하기 위한 인간의 잠재력으로서 제시되는 것 같다. 그 동물의 야생적 힘은 동물-되기를 통해 실재적이 되고, 이를 통해 자본의 포획에 저항하는 주체성을 생성한다. 예술 작품은 그러한 ‘동물-되기’ 과정을 시의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그 시적 이미지의 폭력성을 통해 집단적인 신경 감응을 일으키고, 집단적인 ‘동물-되기’를 이끄는 잠재력을 가진다. 이러한 시적 이미지의 폭력성을 통한 집단적인 ‘동물-되기’ 과정은 시 작품으로 발현되기도 하는 바, 최근 한국의 젊은 시인의 시 작품에서도 그러한 이미지와 동물-되기 과정을 볼 수 있다. 논의의 추상성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고자 아래의 작품을 소개하여 논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도시 외곽의 공장 지대 지하로부터 검붉은 파이프들이 뻗어나온다. 눈

12. 인간의 ‘동물-되기’는 동물의 몸짓이나 모습을 흉내 내는 것이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환상도 아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되기’가 완전히 실재적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실제로’ 사자가 되거나 토끼가 되는 것 역시 아니라고 말한다. 실재적인 것은 생성 그 자체라는 것이다. “동물-되기는 꿈이 아니며 환상도 아니다. 되기는 완전히 실재적이다. 그러나 어떤 실재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동물되기라는 것이 동물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 ‘실제로’ 동물이 될 수는 없으며 동물 또한 ‘실제로’ 다른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것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되기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모방하든지 아니면 그저 그대로 있든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은 잘못된 양자택일이다. 실재적인 것은 생성 그 자체, 생성의 블록이지 생성하는 자가 이행해 가는, 고정된 것으로 상정된 몇 개의 향이 아니다. 되기는 되어진 동물에 해당하는 향이 없더라도 동물 되기로 규정될 수 있고 또 규정되어야 한다. 인간의 동물-되기는 인간이 변해서 되는 동물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재적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의 다른 무엇 되기는 이 다른 무엇이 실재하지 않더라도 실재적이다.”(들뢰즈, 가타리 452-53, 원문 강조).

녹은 물과 공장 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거울 숲의 차가운 빛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파이프들의 통로를 따라 뒤섞인 걸쭉한 검은 액체가 되어 도시의 중심부로 흘러들어온다. 도시의 지하엔 거대한 기계의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액체를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며 열기를 만들어낸다. 뜨거운 검은 물이, 걸쭉하고 부글부글거리는 검은 물이 그가 앉아 있는 사무실에도 공급된다. 그것은 벽 속을 타고 흐르면서 건물의 외벽에 쌓인 눈을 녹게 하고, 온수가 나오게 하며 사무원들로 하여금 서류를 검토하게 한다. 쥐들은 지하의 파이프 근처에서 새끼들을 낳고 파이프에서 새어나오는 증기를 따라 이동한다. 그것들은 뿜추들과 예인자들과 쥐인간들로 봄비는 지하 시장을 가로질러간다. 그곳에서는 도시가 자라나는 소리가 잘 들린다. 그리고 시장 모퉁이의 어둠 속에 그가 앉아 있다. 그는 벽에 기대어 두 무릎을 세운 채 가늘게 실눈을 뜨고 있다. 한복판에 세워진 단상 위에서 모자를 쓴 쥐인간들이 무슨 말인가를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박수 소리. 거대한 톱니들이 맞물리는 소리.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증기의 식혀대는 소리. (서대경, 「바틀비」 38-39)

「바틀비」는 3연으로 되어 있는데, 인용부분은 2연이다. 도시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반(半)폐허 같다. 도시 중심부의 대기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도시 지하의 “거대한 기계의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액체를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며” 만들어낸 열기다. 그 액체란 “도시 외곽의 공장 지대 지하로부터” 뿜어나온 “검붉은 파이프들”을 통해 흐르고 있는 “걸쭉한 검은 액체”를 말한다. 그리고 그 “걸쭉하고 부글부글거리는 검은 물”이 “사무실에도 공급”되어 건물 외벽을 돌면서 온수를 나오게 하고 “사무원들로 하여금 서류를 검토하게” 하는 것이다. 도시의 중심부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의 공장의 폐수를 통해 작동하며 그 폐수가 내뿜는 열기는 도시인들을 일제 중독시킨다. 사무원 중 한 명이 “시장 모퉁이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그’인데, 그는 허먼 멜빌(Herman

Melville)의 소설 『필경사 바틀비』(*Bartleby, the Scrivener*)의 주인공 필경사 바틀비일 것이다. 알다시피 이 필경사는 어느날 고용자가 바틀비가 필사한 것을 검토하지는 말에 “그렇게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한다. 바틀비는 그 이후 고용자의 제안을 모두 그런 식으로 거절한다. 시인은 바틀비의 그 거절이 그 시장 모퉁이에서 “도시가 자라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대경 시인에게 도시가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쥐인간들이 “새 끼들을 낳고” 증식하면서<sup>13</sup> “뿔추들과 예언자들과 쥐인간들로 뭉치는 지하 시장”이 성황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지하에 사는 쥐인간은 도시의 중심부로부터 배제되고 천대받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도시의 존립을 사실상 가능케 하는 존재다. 그들은 지하에서 노예처럼 기계의 톱니바퀴들을 돌려야 하는 노동자다. 그들은 지하에 살면서 ‘동물-되기’를 통해 쥐인간이 되었다. 그들은 도시를 움직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쥐처럼 도시를 갉아먹어 파괴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의 몰락을 예언하는 예언자들과 같은 편이어서 지하 시장에서 예언자들과 세계를 붕괴시킬 모의를 같이 할 것이고, “단상 위에서 모자를” 쓰고 “무슨 말인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붕기를 선동할 것이다. 이 쥐인간이 돌리고 있는 “톱니들이 맞물리는 소리”는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증기의 쇠쇠대는 소리”처럼 불길하고 불온하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바틀비는 점차 도시 중심부의 쥐인간이 되어갔던 것, 그래서 쥐인간은 바틀비를 통해 증식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용하지 못한 위의 시의 3연에서 ‘그녀’가 그에게 서류뭉치를 갖다 주었을 때 그의 책상 서랍에 “살찐 검은 쥐들이 꼬리를 감은 채 서랍 안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이를 증명한다.

13. 들뢰즈와 가타리는 동물-되기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천 개의 고원』(*Mille plateaux*)의 「1730년」 ‘고원을 인간에 대한 쥐의 복수를 다룬 영화 (윌러드)(Willard)에 대한 해설로 시작하고 있다. 그들은 “동물은 무리이며, 무리는 전염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하며 변형된다고”(들뢰즈, 가타리 460)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읽을 때, 위의 시는 집단적으로 증식되는 ‘동물-되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물-되기 과정은 ‘바틀비’의 소극적인 저항에서부터 시작하여 불길하고 불온한 시의 이미지들을 통과하면서 집단적인 신경감응을 통한 정치적인 봉기의 조짐들을 발현한다. 나아가 이 불길한 시적 이미지들의 폭력성은 독자들의 신경감응 역시 일으킬 것인 바, 이러한 신경감응은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 Ⅶ. 나가며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테러 시대’라고 불린다. 보드리야르가 말했듯이, 21세기 세계 지배체제는 ‘테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내파되는 경향이 있다. 이 경향 속에서 권력은 감시 체제를 더욱 구축해나가며, 사회의 상층에서 발병한 편집증이 지하의 감시망을 통해 사회 곳곳에 스며든다. 이와 동시에 기호 자본주의로의 체제 변화에 의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그리고 편집증과 우울증은 주관적인 폭력인 개인의 테러 행위에서 폭발적으로 결합한다. 테러 행위는 현실과 시를 뒤섞으면서 테러를 심미화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본고는 ‘시적 테러’ 또는 ‘테러의 심미화’라고 지칭했다. 이는 발터 벤야민이 1930년대 후반에 파시즘의 특성에 대해 지칭한 ‘정치의 심미화’와 상응한다. 현재 개인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이들은 대개 극우 파시즘적인 이념에 빠져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보아도 이러한 상응이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벤야민은 ‘정치의 심미화’에 ‘예술의 정치화’를 맞세웠다. 우리 시대의 정치의 심미화인 ‘시적 테러’의 경향에 맞세울 수 있는 것이 ‘시의 폭력’이다. ‘목적 없는 수단’인 시의 ‘순수한 폭력’은 우울증과 파시즘적인 정신으로 이끄는 체제의 상징적인 폭력에 맞선다. 이와 함께 다른 삶의 생성—예를 들면 ‘동물-되기’를 통한—을 촉발하고 강제한다. ‘동물-되기’는 상징적이고 구조화된 폭력에 의해 굳어진 삶을 해체하면서, 그 삶

을 미지의 존재로 변환시키는 폭력적인 과정이다. 그렇기에 이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 시의 이미지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폭력적인 시의 이미지를 통한 '집단적 신경감응'은 새로운 욕망을 조직할 수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연다.

이상과 같이, 이 글은 '테러 시대'에 맞서는 '예술의 정치화'를 시적인 것—시의 폭력—의 가능성과 그 현재적 의미를 통해 탐색해 본 시론(試論)이다. 시론인 만큼 논의가 아직 정치하게 정리되지 못했다. 특히 시의 이미지와 폭력성에 대한 좀 더 정치하고 풍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 '정동-정치'(Affective politics)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더욱 계발적인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선 후속 에세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이다.

## Works Cited

- Agamben, Giorgio [아감벤, 조르조]. *Yewoe Sangtae* [Stato di eccezione, 예외상태]. Trans. Kim Hang [김항 옮김]. Seoul: Saemulgyeol [새물결], 2009. Print.
- Artaud, Antonin [아르토, 앙토냉]. *Janbok Yeongeungnon* [Théâtre et son double, 잔혹연극론]. Trans. Park Hyung-Seob [박형섭 옮김]. Seoul: Hyeondai-meehak Pupliching Co. [현대미학사], 1994. Print.
- Baudrillard, Jean [보드리야르, 장]. *Tereorijeumui Jeongsin* [L'esprit du terrorisme, 테러리즘의 정신]. Trans. Bae Young-Dal [배영달 옮김]. Seoul: Dongmunseon [동문선], 2003. Print.
- Benjamin, Walter [벤야민, 발터]. “Pongnyeok Bipaneul Wihayo” [Zur Kritik der Gewalt, 폭력 비판을 위하여]. *Yeoksau Gaenyeome Daehayo / Pokryeok Bipaneul Wihayo / Chohyeonsiljui Oe*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 Zur Kritik der Gewalt / Der Surrealismus etc.,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 폭력비판을 위하여 / 초현실주의 외]. Trans. Choi Seong-Man [최성만 옮김]. Seoul: Gil [길], 2008. 79–117. Print.
- Berardi, Franco [베라르디, 프랑코]. *Bonggi, Siwa Geumyunge Gwanhayeo* [The Uprising: On Poetry and Finance, 봉기, 시와 금융에 관하여]. Trans. Yu Chung-Hyeon [유충현 옮김]. Seoul: Galmuri [갈무리], 2012. Print.
- \_\_\_\_\_. *Mirae Ihu* [After the Future, 미래 이후]. Trans. Kang Seo-Jin [강서진 옮김]. Seoul: Nanjang [난장], 2013. Print.
- Borradori, Giovanna [보라도리, 지오반나]. *Tereo Sidaewi Cheolhak* [Philosophy in a Time of Terror, 테러 시대의 철학]. Trans. Son Cheol-Seong, Kim Eun-Joo and Kim Joon-Soung [손철성, 김은주, 김준성 옮김]. Seoul: Moonji Publishing Co. [문학과지성사], 2004. Print.
- Breton, André [브르통, 앙드레]. “Chohyeonsiljuui Jeiseoneon” [Second manifeste du surréalisme, 초현실주의 제2선언]. *Chohyeonsiljuui Seoneon* [Manifestes du surréalisme, 초현실주의 선언]. Trans. Hwang Hyeon-San [황현산 옮김]. Seoul: Mimesis [미메시스], 2012. 127–228. Print.
- Deleuze, Gilles [들뢰즈, 질]. *Gamgagui Nonri* [Francis Bacon: logique de la sensation, 감각의 논리]. Trans. Ha Tae-Hwan [하태환 옮김]. Seoul: Minumsa Publishing Group [민음사], 1995. Print.

- Deleuze, Gilles, and Félix Guattari [들뢰즈, 질, 펠릭스 가타리]. *Cheon Gaeui Gowon* [Mille plateaux, 천 개의 고원]. Trans. Kim Jae-In [김재인 옮김]. Seoul: Saemulgyeol [새물결], 2001. Print.
- Derrida, Jacques [데리다, 자크]. *Beobui Him* [Force de loi, 법의 힘]. Trans. Jin Tae-Won [진태원 옮김]. Seoul: Moonji Publishing Co. [문학과지성사], 2004. Print.
- Freud, Sigmund [프로이트, 지그문트]. “Duryeoun Natseoreum” [Uncanny, 두려운 낯설음]. *Yesul, Munhak, Jeongshinbunseok* [Art, Literature, Psychoanalysis, 예술, 문학, 정신분석]. Trans. Jeong Jang-Jin [정장진 옮김]. Seoul: The Open Books co. [열린책들], 2003. 399–452. Print.
- Pasquinelli, Matteo [파스퀴넬리, 마테오]. *Dongmulhon* [Animal Spirits, 동물혼]. Trans. Seo Chang-Hyeon [서창현 옮김]. Seoul: Galmuri Publishing Co. [갈무리], 2013. Print.
- Seo, Dae-Kyeong [서대경]. *Baekchineun Daegireul Neukkinda* [Idiots Feel the Atmosphere, 백치는 대기를 느낀다]. Paju [파주]: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문학동네], 2012. Print.
- Vaneigem, Raoul [마네겜, 라울]. *Ilsangsaenghwarui Hyeongmyeong* [The Revolution of Everyday Life, 일상생활의 혁명]. Trans. Ju Hyeong-Il [주형일 옮김]. Seoul: Ihu [이후], 2006. Print.
- Virno, Paolo [パオロ・ヴィルノ]. *Poseuto Hodiseumu Sihonsyugi* [Capitalism of Post Fordism, 포스트포어디즘의 자본주의]. Trans. Hasiramoto Motohito [柱本元彦 譯]. Kyoto [京都]: Zibunshyoin [人文書院], 2008. Print.
- Žižek, Slavoj [지젝, 슬라보예]. *Pongyeogiran Mueosinga* [Violence, 폭력이란 무엇인가]. Trans. Lee Hyeon-Woo [이현우 옮김]. Seoul: Nanjangi [난장이], 2011. Print.
- . *Imbakan Paguk* [Impending Catastrophe, 임박한 파국]. Trans. Lee Taek-Gwang, Im In-Wook and Hong Se-Hwa [이택광, 임인욱, 홍세화 옮김]. Seoul: KKuriebooks [꾸리에북스], 2012. Print.

## Abstract

### **An Essay on the “Aestheticization of Terror” in a “Time of Terror” and the “Violence of Poetry”**

Seong-Hyuk LE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twentieth-first century we live in is called a “terror era.” As Baudrillard says, the governing system of this century tends to suffer from implosion as it is devoted to using all its power for the security to respond to the “terror era.” In this situation, power increasingly forms its surveillance system, and paranoia from the upper classes invades every corner of the society through a surveillance network. Simultaneously, most people suffer from depression caused by a change of the system into a capitalism of taste. And paranoia and depression are combined in acts of terror by individuals. Such an act tends to aestheticize terror, mixing reality with poetry. The paper calls this phenomenon “poetic terror” or “aestheticization of terror.” This corresponds, in Walter Benjamin’s words, with an “aestheticization of politics.” This correspondence can be understood easily, considering that terrorists are currently often into right-wing ideologies. Importantly, as is well-known, Benjamin set the politicization of art against the “aestheticization of politics.” The violence of poetry is what can be set against “poetic terror,” which is the aestheticization of politics in our times. The pure violence of poetry, which is “means with no ends,” stands against the symbolic violence of a system that leads to depression and fascism. This violence of poetry also generates and forces the formation of other life—animal becoming. This is a violent process of changing that other life into an unknown being, deconstructing the life hardened by the systemized symbolic violence. Therefore, the images of poetry resulting from this process are inevitably violent. Furthermore, the “collective innervation” created through the violent images of poetry opens a possibility of politics that can stimulate and organize a new desire.

**Keywords:** ‘terror-era,’ aestheticization of terror, violence of poetry, implosion, depression, Semio-capitalism, ‘Animal-becoming,’ collective innervation

**Seong-Hyuk LEE** is a literary critic who works on modern Korean literature. His Ph.D. thesis is titled *A Study of Avant-gardism of Modern Korean Poems in the 1920s*. He works on Korean proletarian poetry and avant-garde poetry. His books include *The Firework and Illumination* (2005), *Lyric Poetry and “The Real”* (2011), *Toward the Poetry of Future* (2013), *The Yeokrin (逆鱗) Against Modernity* (2015). He is currently teaching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dland21@hanmail.net

Received: 30 April 2016 Reviewed: 21 May 2016 Accepted: 27 May 2016
---